

메이저 공세로 재편되는 일본 석유업계

최

근 일본의 토젠은 휘발유시황 악화라는 악재 때문에 6월의 중간결산에서 당초 예상했던 60억엔의 흑자가 8억엔의 적자로 돌아섰다고 발표했다. 토젠이 적자를 낸 것은 상장 5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토젠은 정제전문회사로 각각 25%씩 출자하고 있는 옛소(Exso) 석유와 모빌(Mobil) 석유에 전량 납품한다. 발표에 따르면 휘발유시황의 악화가 옛소와 모빌의 수익 악화로 이어져 두 회사에 대한 납품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옛소와 모빌은 효율경영으로 명성이 자자한 외국계 석유 도매회사들이지만, 이 회사들의 수익이 악화될 정도로, 96년 4월의 특석법(特石法) 폐지 이후 일본의 휘발유시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휘발유시황이 이처럼 악화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과잉

정제설비를 안고 있는 일본 정유사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대량 생산한 결과이다. 이 때문에 현물가격이 급락해 시황 악화에 박차를 가했다. 또 작년 가을부터 옛소가 실시하고 있는 지역별 시장동향에 따른 차등 가격제 도입도 덩핑을 과열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외국계 도매회사들의 결정적인 오판은 정유사로부터의 자금지원을 통해 일본계 주유소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오래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제품 판매자유화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 유럽 등지의 사례에 비추어, 「일본에서도 몇 년내에 주유소의 40% 정도가 문을 닫을 것」(외국계 회사 간부)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크를 이루었던 95년도 말의 6만 421개에 비해 97년도 말에는 5만 961개로, 2년간 불과 806개만이 감소했을 뿐이다.

일본 석유업계 경영실적

(단위:억엔, %)

	매출액	경상이익	휘발유 판매세어	코멘트
日本石油	18,500	100	16.3	자산규모 최대로 불황에 대한 저항력 강함. 대특약점주의의 메리트 발휘가 과제
出光興産	19,000	100	14.0	판매력 강하나, 부채 1.3조엔의 압축에 주목할 것
昭和シェル石油	14,000	100	12.6	경영에서 쉘의 선택 농후해짐. 니가타제유소 폐쇄 결정으로 효율경영 가속화
三菱石油	10,600	▲50	8.2	미쓰비시상사로부터의 임원파견, 노후화된 가와사키정유공장의 처리가 과제
코스모石油	13,800	60	11.7	합작회사의 비효율개선에 주력, 이익률 높은 유분(溜分)판매강화에 중점전략
제너럴石油	3,700	23	5.6	작년부터 명실상부한 엑슨의 자회사로, 미국식의 효율경영 발휘가 포인트
저팬에너지	14,100	20	10.7	판매에서 종합상사에 대한 의존도 높음. 자회사의 경영력 발휘에 기대

그러나 이대로 계속할 경우 석유업계의 과당경쟁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서로가 자멸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런만큼 2001년을 전망할 때 석유업계는 재편을 피할 수 없는 형편이다. 먼저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역시 외국계 회사들이다.

엑슨(Exxon) 계열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다. 작년 7월부터 제네럴석유에 대한 출자비율을 50.1%로 늘려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만들었다. 지난 6월 말, 제네럴석유는 임원수를 14명에서 5명으로 줄였는데, 7월 들어 같은 엑슨계열인 옛소석유도 임원수를 8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있다. 이 두 회사는 올해부터 결산기도 통일하게 되며, 앞으로는 제네럴 석유의 간접부문 인원삭감을 통해 합병에 가까운 경영체제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쇼와셀석유는 그동안 현안이 되고 있던 효율성이 낮은 니가타(新潟) 정유공장을 99년 3월에 폐쇄할 예정이다. 쇼와셀에서는 올 들어 갑자기 쇼와석유 출신의 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후, 셀석유 출신인 니이미(新美春之) 회장이 사장도 겸하고 있다.

정유공장 폐쇄 등 향후의 경영전개에서는 셀의 색채가 강해질 것이 틀림없다. 때문에 미쓰비시석유와의 관계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미쓰비시석유는 비용절감에 뒤늦게 착수함으로써 2년 연속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는 흑자전환을 목표로 대대적인 코스트 압축을 감행하고 있는데, 6월 주주총회에서는 최대주주인 미쓰비시상사로부터 2명의 임원진이 파견되었다. 이번엔 경영을 흑자로 되돌리지 못할 경우 미쓰비시 상사 주도의 재건이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쓰비시석유의 재건을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이 경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노후화된 가와사키(川崎) 정유공장의 처리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정유공장이 인접해 있는 쇼와셀석유와의 정제설비 통합논의가 다시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 1조 3천억엔이라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이데미쓰도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영개선의 기본

은 과다한 부채규모의 삭감에 있다. 그러나 과당경쟁에 따른 저채산체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리마저 상승국면으로 접어들 경우에는 경영개선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런만큼 주거래은행의 이해를 구하면서 얼마만큼 부채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인지가 최대의 현안이다. 여기에 실패할 경우 니혼석유에 이은 시장점유율 2위자리에서 밀려나리는 것을 거의 확실하다.

저팬에너지와 코스모석유는 비용감축과 자산매각으로 현상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저팬에너지는 자회사인 닛코(日産) 금속의 매각으로 주식매각익만 120억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현수준 이상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업계 최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니혼석유 이외에는 모두 재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

〈신한종합연구소, 일본경제동향〉

용어해설

대출금 출자전환

· 채무기업의 주식을 받고 빚을 탕감해 주는 것

대출금의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자인 기업의 빚을 탕감하는 대신 그 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의 부채조정방식이다.

채권자는 기업의 빚과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기업 경영을 향상시켜 수익을 높여주는 것이 출자전환의 취지다.

출자전환을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을 막아 신용 경색을 완화하고 실업자를 구할 수 있다. 동시에 금융권의 부실확산도 방지할 수 있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대출 중 부실해진 부분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은행의 부담을 덜어줘 BIS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출자전환시점에서는 일시적 개선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소생 여부에 따라 은행의 BIS비율도 영향을 받는다.

기업의 경우 기존 대주주는 경영권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또 출자전환을 실현하려면 은행이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능력과 수많은 채권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